

흥물스런 도축장의 대변신...파리지앵의 문화오아시스가 되다

도시재생

문화가 해법이다

해외편

(23) 라 빌레트 공원

파리=박진현 문화선임기자

한 해 평균 32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파리는 세계적인 문화예술 도시다. 그래서일까, 파리 시내를 여행하다 보면 샹젤리제 거리,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개선문, 노트르담 성당과 같은 주요 명소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넘쳐난다. 하지만 인파로 북적거리는 관광지들을 찾다 보면 즐거움도 잠시, 어느 순간 피로감이 밀려 든다. 가는 곳마다 번잡스럽다 보니 차분하게 돌아다니며 파리의 진수를 음미하는 여유를 누릴 수 없어서다. 날마다 관광객들에게 '차이'는 '파리지앵들'은 얼마나 피곤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파리의 북동쪽 제19지구에 자리한 라 빌레트 공원(The Parc de la Villette)은 이런 일상에 지친 파리지앵들을 위한 오아시스 같은 존재다. 지난 여름 찾은 라 빌레트 공원은 파리시내의 어느 관광명소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다. 정문에 들어서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름의 '라 그랑드 알'(도축장·La Grande halle) 다목적 공연장과 '음악의 도시'(Cite De La Musique) 콘서트 홀이 눈길을 끌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발길을 돌리자 공원 중심부에 흐르는 500m 길이의 수로와 공원 곳곳에 설치된 붉은 조형 건축물 '폴리(Follie)'가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드넓은 잔디밭에는 한낮의 햇볕을 받으며 낮잠을 자거나 아이들과 배트민턴을 즐기는 아빠의 모습,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연인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 펼쳐졌다.



1890년 대 도축장이었던 '라 그랑드 알'의 모습.



지난 1987년 자연, 과학, 문화, 교육 등의 복합 문화테마파크로 변신한 라 빌레트 공원은 파리시민들이 가장 즐겨찾는 대표적인 휴식처다. 맨 왼쪽의 은빛 구형 건축물은 국립 과학전시장의 IMAX 영화관인 '제오드'다. /파리=박진현기자 jhpark@kwangju.co.kr

지난 1987년 개장한 10만5000여 평(35.5ha)의 라 빌레트 공원은 자연과 인간, 과학과 예술 등을 컨셉으로 조성된 복합문화테마파크다. 국립 과학산업관을 비롯해 파리 시립 음악원, 음악 박물관, 아이 맥스 영화관, 라이브 공연장, 콘서트 홀, 야외 놀이터 등 10여 개의 과학·문화시설과 34개의 폴리 조형물이 밀집돼 있다.

원래 이 곳은 뤽상부르 등 파리의 모든 공원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파놓은 수로와 도축장이 들어선 파리 최대의 가축시장이었다. 1867년 루이 3세의 지시에 의해 건립된 소 도축장은 1974년 폐쇄될 때까지 약 100여 년 동안 가축거래장으로 호황을 누렸지만 도시확장과 미관개선을 위해 파리 외곽으로 이전됐다. 이후 거대한 부지의 활용방안은 파리의 최대 이슈가 됐다. 하지만 혐오시설이었던 '과거' 때문에 마땅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오랫동안 도시의 흉물로 남아있었다.

10만 여 평에 이르는 산업폐기시설의 방치는 프랑스 정부에 적잖은 부담이 됐다. 1977년 지스카르 데시탱 대통령이 라 빌레트의 기존 시설을 활용해 과학산업공원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람은 후임인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었다. 미테랑 대통령은 1981년 취임 직후 프랑스 혁명 200주년을 기념해 대대적인 문화예술시설 확충 프로젝트를, '그랑 프로젝트'(Grands Project)를 발표했다.

자연과 인간, 과학과 예술 컨셉

'그랑프로제' 문화프로젝트 추진

과학관·영화관·공연장 등 조성

년1천만명 찾은 문화테마파크로

지금의 오르세미술관, 국립도서관, 프롬나드 플라테(본보 11월 17일자 소개), 라빌레트 공원 등이 그랑프로제의 성과들이다.

1982년 '21세기 미래 도시형 공원'을 내건 라 빌레트 공원의 설계공모에는 41개국에서 약 40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이들 가운데 '점·선·면'의 공간 구성을 내건 스위스 태생의 프랑스 건축가 베르나르 추미(Bernard Tschumi)가 '라 빌레트 공원'의 디자이너로 선정됐다. 베르나르 추미는 해체주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를 자신의 디자인 설계과정에 참여시켜 전통적인 도심 공원의 개발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미학을 제시했다.

베르나르 추미는 시민들을 공원의 수동적인 이용자로 규정할 런던의 하이더 파크나 뉴욕의

센트럴 파크의 전통적인 방식을 거부했다. 대신 공원을 하나의 거대한 예술세계로 간주하고 휴식공간 이외에 사람과 공원의 적극적 교감을 통해 또 다른 '창의적인 공간'(creative space)을 즐길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공간 연출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의 컨셉에 의하면 라 빌레트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연 경관, 폴리와 '관계를 맺는'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른 휴식의 '질'을 누리게 된다.

특히 공원 곳곳에 설치된 조형 건축물 '폴리'는 창의적인 휴식의 원천이자 라 빌레트 공원의 아이콘이다. 광주 폴리의 모델이기도 한 폴리 조형물은 베르나르 추미가 제안한 해체주의 건축을 상징하는 심볼로 원래는 빌딩이나 정원을 꾸미는 장식물이었다. 빨간색 강철에 높이 약 10m의 네모난 형태로 설치된 34개의 폴리는 각각 레스토랑과 전망대, 카페, 도서관, 인포메이션 센터 등으로 쓰이고 일부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공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건축가 베르나르 추미가 구현하고자 했던 창의적인 공간연출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공원에 균등하게 배치된 폴리는 베르나르 추미의 '점·선·면' 컨셉 가운데 점에 해당되며 선은 산책길, 면은 공원의 야외놀이터나 스포츠 그라운드이다.

무엇보다 수로를 따라 이어진 고가 다리와 지구형상을 본떠 만든 국립 과학산업관의 기하학

적인 외관은 미래 도시상을 보여준다. 라 빌레트 공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과학산업관은 연중 공원을 찾은 1천만명의 방문객 가운데 400만 명이 다녀갈 정도다. 과학 산업관의 IMAX 상영관인 '라 제오드'(La Geode)는 36m높이의 은색 구형 건물로 과학과 환경 등을 주제로 한 3D 영상물을 연중 상영한다.

라 빌레트 공원의 또 다른 특징은 클래식에서부터 힙합까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6~7개의 음악 공연장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연장의 이름 그대로 '음악의 도시'인 셈이다. 공원의 한 칸에 자리한 클래식 전용홀에서부터 도축장 핵심시설을 다목적 이벤트장으로 재생시킨 그랑드 알, 지난 2011년 유럽에서 최초로 K팝 공연이 열렸던 제니스 공연장, 악기의 변천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음악박물관까지 다양하다.

라 빌레트 공원의 흥보매니저인 프랑수 가리이는 "용도폐기된 공장이나 시설을 공원으로 활용한 사례는 많지만 라 빌레트 공원처럼 과학, 산업, 교육, 오락, 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공간들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융복합 개념의 테마파크는 드물다"면서 "시민들을 단순히 휴식만 취하는 소극적인 존재가 아닌 공원의 적극적인 향유자로 끌어 들이는 열린 컨셉은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미래형 도시"라고 강조했다.

/jhpark@kwangju.co.kr



라 빌레트 공원의 아이콘인 34개의 붉은 색 폴리(follie)는 레스토랑, 카페, 도서관, 인포메이션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목적 이벤트 공연장인 '라 그랑드 알'에서 개최된 힙합댄스 경연대회.



악기의 변천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음악 박물관 로비 모습.

1·2층 이태리가구

3층 통원목가구

4층 모던가구

**이태리가구
혼수가구
특가전**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

☎ 1899-0240